

# 인터뷰 질문 리스트 (인터뷰 가이드)

## 1. 주인공: 친준초 (주인공: 친준초)

-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你的名字叫什么?)
-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你现在从事什么工作?)
-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你的家庭关系是怎样的?)
- 어릴 때 어느 집들에서 거주하셨나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小时候都在谁家住过? 请按时间顺序说明。)
- 어릴 때 형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小时候和哥哥关系如何? 你觉得是为什么?)
- 어릴 때 형 외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나요?(小时候有别的朋友吗?)
- 지금은 어머니와 더 친하신가요, 아니면 이모님과 더 친하신가요?(现在是和妈妈更亲还是和姨妈更亲?)

---

## 2. 주인공의 부모님 (주인공 부모님)

- 친준초 군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您和陈俊超的关系是?)
- 친준초 군은 어릴 때 어디에서 거주했었나요?(陈俊超童年都在哪里住过?)
- 형은 어릴 때 어디에서 거주했었나요?(哥哥童年都在哪里住过?)
- 당시에 왜 광둥(广东)으로 가서 일하기로 결정하셨나요?(当时为什么选择去广东工作?)
- 광둥으로 가실 때 왜 두 형제를 데려가지 않으셨나요?(为什么去广东没带上兄弟两个?)
-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后来又为什么选择回家?)
- 두 형제의 사이는 좋은 편인가요?(兄弟两个关系好吗?)
- 당시 타지로 일을 나가실 때 마음이 어땠나요?(当时外出务工的时候心情如何?)
- 두 형제의 성격 차이가 큰 편인가요?(兄弟两性格差异很大吗?)
- 두 형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덕담이 있으신가요?(有没有给兄弟两个的寄语?)
- 당시 광둥에 함께 일하러 간 고향 분들이 많았나요?(当时有很多老乡也在广东打工吗?)

---

## 3. 주인공의 이모 (주인공 이모)

- 친준초 군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您和陈俊超的关系是?)
- 친준초 군과 형은 각각 언제 이모님과 함께 생활했었나요?(陈俊超和哥哥两个人分别是什么时候跟您一起生活过?)
- 당시 두 형제는 어땠나요?(성격이나 모습 등)(那时候的兄弟两怎么样?)
- 이모님이 보시기에, 현재 친준초 네 가족의 관계는 어떠한가요?(现在陈俊超一家)

人的关系, 在您看来怎么样? )

- 당시 고향 분들이 광저우(广州)로 일을 하러 많이 떠났나요? (当时有很多老乡都去了广州打工吗? )
- 광저우로 일을 하러 떠났던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您如何看待去广州打工这个决定? )
- 형과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您觉得哥哥和父母关系怎么样? )

silent as the sea 일일촬영계획표

日期 (날짜)	时间 (시간)	地点 (장소)	拍摄内容 (촬영 내용)
01/05	10:00-12:00	赣州人民巷 (인민항)	小卖部旧址:回忆采访 (옛 구멍가게 터: 인터뷰)
	14:00-18:30	赣州羊婆巷 (양파항)	大姨妈家:回忆/访谈 (큰이모 댁: 추억 인터뷰)
01/06	09:00-11:00	主人公家 (주인공 집)	主人公室内深度访谈 (주인공 실내 심층 인터뷰)
	13:00-16:00	嵯峨寺小学 (초등학교)	学校回忆采访 (학교 관련 추억 인터뷰)
	16:30-17:00	嵯峨寺小学 (초등학교)	学生放学空镜 (학생 하교 장면 스케치)
	19:30-21:30	主人公家 (주인공 집)	主人公父母访谈 (주인공 부모님 인터뷰)
01/07	16:00-19:00	课外辅导班 (방과후학원)	主人公工作日常 (주인공의 업무 일상 촬영)
01/08	06:00-08:00	赣州 → 广东 (광둥)	集合/跨省移动 (집합 및 장거리 이동)
	08:00-10:30	广东出租屋 (자취방)	母亲回忆相关访谈 (어머니 관련 추억 인터뷰)
	11:00-13:00	幼儿园 (유치원)	幼儿园时期回忆访谈 (유치원 시절 추억 인터뷰)
01/10	07:00-10:00	赣州 → 石城 (스청)	集合/前往石城 (집합 및 스청 이동)
	10:00-12:00	舅舅家旧址 (외삼촌댁)	舅舅家回忆采访 (외삼촌댁 거주 추억 인터뷰)
	13:00-15:00	石城一小 (스청 제1초)	小学回忆/学生玩闹 (초교 추억 및 아동 스케치)
	15:00-17:00	小姨妈家 (작은이모 댁)	小姨妈家回忆采访 (작은이모 댁 추억 인터뷰)
01/11	03:30-04:30	主人公家 (주인공 집)	父母起床画面 (부모님 기상 모습)
	08:00-09:30	主人公家 (주인공 집)	做早餐/起床日常 (조식 준비 및 일상)
	10:00-11:30	父母工作地 (직장)	父母工作画面 (부모님 근무 현장 촬영)
	14:00-15:30	菜市场/街道 (시장)	主人公买菜画面 (주인공 장보는 모습 촬영)
01/12	10:00-11:30	赣州人民巷 (인민항)	小卖部回忆补充采访 (구멍가게 추가 보충 인터뷰)
	13:00-15:00	大姨妈家 (큰이모 댁)	补充访谈/相处日常 (보충 인터뷰 및 일상 스케치)
01/26	15:00-20:00	主人公家 (주인공 집)	做饭/合家欢晚餐 (요리 과정 및 가족 식사)
02/19	15:00-17:00	大润发超市 (대형마트)	市民购年货空镜 (설맞이 장보는 시민들)

졸업 작품 예비 심사 단계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다루기로 결정했지만, 다큐멘터리로 제작할지 단편 영화로 제작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 시나리오가 완성될 즈음,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친준초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 친준초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가 어릴 적 ‘유수아동’ 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사실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은 고작 3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실제로는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그 순간 나는 유수아동이라는 경험이 단순히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후 우리는 여러 차례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감정을 점차 구체화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안을 완성했고, 예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겨울방학 동안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촬영을 마쳤다.

촬영은 전 과정이 나와 주인공 친준초 단 두 사람이서 진행되었다. 주인공은 가족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외의 모든 촬영과 준비는 내가 담당했다. 다행히 사전 계획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예상했던 것만큼의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촬영 인원이 나 혼자였기 때문에 작업 과정 속 나 자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장 수월했던 부분은 실내 인터뷰 촬영이었다. 조명과 카메라 세팅이 필요했지만, 사전 준비가 가장 철저했던 만큼 안정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촬영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주인공의 이모와 어머니 인터뷰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가장 큰 돌발 상황은 마지막 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발생했다.

식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형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집에 오지 않았다. 계획했던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장면’에는 세 사람과 형을 위해 남겨둔 빈 그릇만이 남게 되었다. 비록 계획과는 달랐지만, 그것이 이 가족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족에서 큰아들, 즉 주인공의 형은 영화 속에서도, 실제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늘 주변을 맴돌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는 주인공과의 갈등 장면을 통해 등장하고, 이모의 인터뷰에서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인물로, 어머니의 인터뷰에서는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인물로 드러난다. 마지막 가족 식사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는 일관되게 ‘부재하는 존재’로 남는다.

형은 주인공과 대비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주인공이 조용하고 완만한 방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한다면, 형은 보다 극단적이고 격렬한 방식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촬영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이후의 후반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큰 도전이었다. 특히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료 정리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낯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또한 아무리 철저히 대비했다고 생각했음

에도 불구하고, 편집 도중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일부 자료가 손실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기획안을 작성하고,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촬영과 편집을 거치는 전 과정에서 내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관객이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주인공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혹은 단순히 ‘불행을 소비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비 심사를 준비하던 당시, 지도 교수님과 동료들은 중국 학생들이 유독 가족 이야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비슷한 갈등과 반복되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유수아동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는 많은 중국인에게 공통된,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작자로서 나는 이러한 감정에만 머무르며 스스로를 연민하는 데 그치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만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 다큐멘터리가 아직 많이 미숙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스스로도 아직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을 앞둔 지금, 나는 이것이 현재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종적인 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